



4면

익산시의원들과 교육현안 논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음 3월 23일) 제32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美 워싱턴주와 다각적 교류협력 강화

양 지역 공동 관심사
탄소산업 분야 중심
경제 협력방안 논의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이후 전북을 방문해 양 지역간 문화·경제·인적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워싱턴주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은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탄소산업, 공무원 상호 파견 공공외교 등 경제통상·인적·문화 교류의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미국 방문단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북을 소개하고 워싱턴 주의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위해 관심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일정을 구성했다. 특히 도는 워싱턴주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 첨단 복합재 관련 기업이 80여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테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이자 방위산업체인 보잉 컴퍼니의 보잉 상업기(Boeing Commercial Airplanes BCA) 본사와 대규모 공장인 각각 시애틀과 에버릿에 위치하고, 탄소섬유 생산기업 SGL오토모티브 카본피버스(SGL Automotive Carbon Fibers, BMW그룹과 SGL카본그룹의 조인트벤처) 공장이 워싱턴주 서쪽 모지스레이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와 교류지역인 미국 워싱턴주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케이스 고호너 하원의원, 마리 리아빗 하원의원 등 방문단이 11일 전북을 공식 방문해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2명)와 만남을 가졌다.

도는 방문단의 방한 이전부터 양 지역 공동 관심사인 탄소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미 방문단은 앞서 1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우주항공·탄소복합재 제조업체 하이즈 복합재산업 등을 찾았다. 이 기업은 이미 보잉사와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방문단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11일에는 새만금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등 현장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은 한옥 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

문 발효음식, 무형유산 등 전북의 문화를 탐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아태마스터스 개막식에 참석, 전북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며 자매결연지로서 우애를 다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를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농식품, 탄소,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확장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각적 파트너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워싱턴 주와 실질적 경제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종합 최우수'

매니페스토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전북도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2023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 SA(에스에이)'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실천계획서 및 공개자료 등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4월 17일 발표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가점성(60점 만

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4개 분야 35개의 세부지표별 점수를 절대평가해 총점 90점 이상을 에스에이(SA)등급으로 선정했다.

이 평가에서 당초 전북도는 공약 일치도 Pass, 가점성 및 투명성 2개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민주성' 분야 제도 부문에서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기한 유무'의 평가점수 2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주성 분야를 SA 등급으로 정정·계시함으로써 김관영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는 모든 평가 분야에서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종합 SA(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정의 출발점이다. 이런 각오로 공약 실천계획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



11일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장 일대를 돌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전북 아·태 마스터스 성화 '불 밝히다'

도내 시·군서 성화맞이 행사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화가 불을 밝혔다. 11일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틀간 전북 14개 시군청 광장에서 성화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개최식이 펼쳐지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13일에 최종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성화봉송에는 선두에 서는 주주자 부주자, 호위주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이 맡은 가운데 14명의 주주자 중 최고령 주주는 익산시의 67세 김영순(여)씨, 최연소는 김제시의 18세 이준형군이다.

김영순씨는 익산 미륵사에서 주선녀가 채화를 한 후 그 불이 14개 시군을 돌 수 있도록 이동성화차량에 불을 붙이는 구간을 담당한다. 최연소 주주자인 김제시 태권도부 선수인 이준형군은 김제시청에서 성화맞이 행사를 마친 뒤 부안으로 출발하는 이동성화차량에 불을 붙이는 구간을 담당한다.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1일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전북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되는 성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이니만큼 이 서 금암광장 교차로까지 6개 구간을 주자가 성화를 봉송할 예정이다.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 이강오 사무총장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성화봉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